

목포시 2020년 모든 섬에 수돗물 공급

140억 투입 해저관로 3.8km 등 상수도관 11.6km 매설 배수장·가압장도 건립...울도·외달도 등 물 부족 해소

목포시가 관내 모든 섬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유달동 관내 울도·달리도·외달도 등 섬 지역 주민들에게 오는 2020년부터 수돗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8일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140억원이 소요되며 2017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에 따라 국비 98억원과 시비 42억원(매칭비율 7대3)이 투입된다.

총 연장 11.6km에 걸쳐 지름 80~150mm의 관을 매설하는 공사로, 바다 속으로 관을 매설하는 구간만 3.8km에 이른다. 또 배수장과 가압장도 건설된다.

목포시가 내놓은 사업계획에 따르면 북항→장좌도→울도 구간은 총 연장 5.2km로 해저 구간이 2.0km, 육상은 3.2km다. 가장 규모가 큰 이 사업에는 사업비 62억원이 투입돼 110세대에 수돗물이 공급된다.

또 장좌도→소두량도→달리도는 총 연장 5km(해저 1.3km, 육상 3.7km)로 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며 급수 대상 인구는 135세대 253명이다.

비교적 가까운 달리도→외달도 구간은 총 연장 1.4km(해상 0.5km, 육상 0.9km)에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돼 38세대가 물 걱정을 벗어나게 된다.

특히 해수욕장이 있는 외달도는 여름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관광명소로 그동안 관광 성수기에는 극심한 물 부족을 겪어왔다.

■ 도서지역 상수도 공급 노선도



공사 공법은 보호 덮개 안에 관을 넣어 바닥에 내려놓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해저 암반을 5m 정도 뚫고 내려간 뒤 다시 터널을 뚫고 그 속에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해저 터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중점 검토되고 있다.

시설비는 일반 공법보다 2배가량 더 들지만 기존 해저 상수도 관로가 안고 있던 파손

위험이 없는 데다, 내진 설계까지 반영돼 지진에도 걱정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내년 초 전남도 계약심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8년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시 유달동 관내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양관광 목포의 선두적 역할이 기대되는 외달도 상수도 보급은 그동안 간이 상수도에 의존해 온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청정도서 위상 제고, 관광객 유치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률 시장은 “해저에 수도관을 매설해 수돗물을 끌어오는 방법만이 오랜 세월 식수난을 겪어 온 섬 지역 주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확신하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가 완성돼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 효과 ‘톡톡’

한국어 교육·특성화 사업 등 목포시, 조기 정착 돕기 성과

목포시가 갈수록 급증하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펼쳐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관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총 1060명. 이 가운데 베트남(312명)과 중국(318명)이 가장 많다. 한국계 조선족은 137명, 필리핀 123명, 일본 41명, 캄보디아 24명, 태국 24명 등이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4억5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종합적 가족 지원체계 구축’으로 3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이주여성 데마, 한국문화 교육 ▲부부 공동체 훈련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통역·번역은 물론 자녀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 7100만원을 들여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적응과 결혼 이주여성들이 목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각 2000만원과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의숙 목포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다문화가정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이들을 위해 ‘서남권 다문화 가족 축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진정방문과 친정부보 초청 등 각종 사업을 통해 협력증진을 물론 적극적인 사회 진출 등을 돕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인어상의 변신 기대하세요... 스토리텔링·포토존 만들어 관광명소로



목포시 대반동 바닷가 애기바위 위에 설치된 현재의 인어동상. 이곳에서 석양 무렵 목포대교를 바라보는 모습은 절경 중의 절경으로 꼽힌다.

목포시 대반동 바닷가 명소인 ‘인어상’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과 함께 포토 존으로 활용해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목포시는 18일 “유달산~고하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와 맞물려 목포대교 야경 등 풍경이 뛰어난 대반동 인어동상과 주변 환경을 재정비해 포토 존으로 활용하고,

인어상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 상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반동 인도양 횡단 앞 애기바위 위에 설치된 인어상은 가로 0.9m, 세로 0.4m, 높이 1.2m 규모로 흉순모 목포대 교수의 작품이다. 지난 1980년 목포청년회의소가 설치했다.

그동안 현재의 인어상은 접근성이 어렵고 만조 시 물에 잠겨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만조 시에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자연석을 이용해 높이를 조정하고 주변 데크 시설과 포토 존, 스토리 안내 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억원

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겠다”면서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시 관광객 유치를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중기 특별지원지역’ 지정 다양산단 분양 탄력

판로·자금 등 특례지원 가능

목포 다양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입주기업에 대해 제품 판로, 자금 등 특례 지원의 길이 열려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주 중소기업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익계약이 가능해지고 자금 융자한도 확대, 신용보증 및 기술개발(R&D) 자금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중기 특별지원 지역 지정

은 목포시와 전남도, 박지원 국회의원이 유가적인 협조로 얻어낸 결과여서 값진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중기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산단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 유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산업집적 현황과 생산 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단단지를 대상으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의회, 시정질문 접수 후 취소 뎀 패널티 부여

목포시의원들은 앞으로 시정질문을 접수했다가 취소하면 다음 회기 시정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패널티를 적용 받게 된다.

최근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복성)는 시정질문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의원에 대해 시정질문 참여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는 목포시의회는 일부 시의원들이 일단 시정질문을 신청했다가 일정이 결정되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의사운영에 차질을 빚어온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알

려지면서 목포시의회 안팎에서는 패널티를 1년까지 시정질문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목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의원 징계 기준(결직신고 위반,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등 영리 거래 금지 조항)도 신설해 위반 시에는 경고, 공개사과와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